

곡성 특산물, 청년 셰프 통해 'K-푸드'로 재탄생

군, '나만의 메뉴 만들기' 쇼케이스... 혁신 메뉴 선봬 조상래 군수 "음식관광 도시·부가가치 창출 지원"

곡성군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K-푸드' 창작 무대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K-푸드 나만의 메뉴 만들기' 쇼케이스를 열고, 청년 셰프 16명이 개발한 혁신적인 메뉴를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K-푸드 취·창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최종 성과 발표 자리였다. 한 달간의 과정을 거친 교육 수료생들은 곡성을 대표하는 토란, 갯잎, 흑찰옥수수, 멜론 등을 재료로 △갯잎 코티지 키마 카레 △토란 노기 △갯잎 페스토 돼지안심 스테이크 △흑찰옥수수 휘낭시에 등

참신한 요리를 내놓았다. 시식단에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강덕구 군의회의장, 외식업 전문가, 지역 창업가 등 40여명이 참여해 메뉴를 평가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요리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 파리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출신이자 곡성 출신인 김현수 셰프를 비롯해 순천 '오토르망' 오너셰프 이노선, 뉴욕 미슐랭 밥 구르망 레스토랑 출신이자 광주 '요리의 바다' 오너셰프 이순철, 순천 조훈모 과자점의 조현익 대표와 김건일 생산부장, 브랜드 전문가 등이 교육에 힘을 보탰다.



곡성군은 최근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K-푸드 나만의 메뉴 만들기' 쇼케이스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메뉴 개발뿐만 아니라 브랜딩, 스토리텔링, 진로 탐색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전문 셰프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취·창업

연계 지원 단계'를 통해 청년들의 실제 창업과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상래 군수는 "이번 쇼케이스는 곡성의 우수한 농산물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을 보여줬다"며 "곡성이 K-푸드를 선도하는 음식 관광 도시이자 청년들의 기회와 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19일부터 지리산역사문화관 일원

구례군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지리산역사문화관 일원에서 '2025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흙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라는 주제에 맞춰 △주제관 △기업관 △친환경 플라마켓·홍보관 △약선셰프의 텃밭 △글로벌 시민 토크쇼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흙의 가치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약선셰프의 텃밭에서는 국내 1호 푸드테라피스트 김연수 셰프가 직접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시연해, 건강한 흙에서 자란 농산물의 가치를 체험하고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박람회 홍보대사인 국제 환경전문가 벨기에 대표 줄리아 퀴타르, 브라질 대표 카를로스 고리토, 이탈리아 대표 크리스티나 등이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각국의 흙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나 체험행사가 아니라, 흙 살리기의 중요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문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장흥, 12일까지 수강생 모집

장흥군은 오는 12일까지 '장흥 문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수강생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 자산을 해설 콘텐츠로 체계화하고 방문객에게 장흥 문화를 전문적으로 전달할 해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정원은 20명 내외로,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 누리집(www.jangheu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16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하며, 문학 이론과 지역 문학사, 문학 관광 해설 기법, 해설 시연 및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문학·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고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장흥군 거주자, 문학 전공자 및 유사 활동 경력자를 우대한다.

군 관계자는 "문학관, 작가 생가, 작품 배경지를 하나의 서사로 엮는 양질의 해설을 통해 장흥을 찾는 문화기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벨 문학 도시 장흥'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성 기자 jms0311@

금호타이어 신공장 합평 빗그린산단 이전 협력

이상의 군수-금호타이어 부사장, 추진 현황·협력 방안 논의

합평군이 금호타이어의 빗그린국가산단 신공장 건립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4일 합평군에 따르면 이상의 군수와 김명선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최근 신공장 건립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서 이 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행정을 나타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0월 30일 합평군 일원 외치리 일원에 50만㎡ 부지를 계약하고, 친환경 타이어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한 최첨단 신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신공장은 2025년 착공, 2027년 연말 준공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신공장이 가동되면 금호타이어의 900명이 근무하게 되며 연간 530만본 생산 체제가 마련된다. 향후 증축을 통

해 1200만본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약 280개 협력업체와의 연계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금호타이어가 신속히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 유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자 상담과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이들 위해 전남도-합평군-금호타이어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행정 지원과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상의 합평군수(오른쪽)와 김명선 금호타이어 부사장은 최근 신공장 건립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의 군수는 "금호타이어의 신공장 건립은 합평군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군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합평군을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선 부사장은 "합평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합평=최일균 기자 6263739@

"광양 정체성·가치 담은 마스코트 찾아요" 시, 내달 13~17일 '디자인 공모전'...총상금 1400만원

광양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마스코트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양시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의 주제는 광양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마스코트 디자인이다. 성별과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캐릭터와 중복되지 않는 독창성을 갖추고, 광양시 SNS 캐릭터 '매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스토리텔링도 심사의 핵심 요소로, 캐

릭터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매돌이'와 세계관을 공유하며 확장 가능한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접수는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MY광양' 앱에서 진행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1건만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시민 선호도 조사 50%와 전문가 심사 50%를 합산해 진행된다. 총상금은 1400만원으로, 최우수상 700만원(1점), 우수상 각 200만원(2점), 장려상 각 100만원(3점)이 수여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고흥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 580억 돌파

첫 발행 이후 6년 만에...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고흥군의 올해 고흥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이 580억원을 넘어섰다. 2019년 첫 발행 이후 6년 만의 성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4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사랑상품권은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발행액이 580억 원(정책발행 포함)을 돌파해 지난해 총 발행액(330억원) 대비 25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환전액은 480억원

으로, 발행액 대비 82%에 달한다.

고흥사랑상품권 기맹점은 전통시장, 식당, 카페, 미용실, 마트·슈퍼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00여개 업소다. 상품권 사용액은 전역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돼 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이 20~4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상품권 할인 판매 역시 주민 생활 안정

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상품권을 상시 10% 할인하고, 설 명절과 휴가철에는 15% 특별 할인을 적용해 군민과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에게는 알뜰한 소비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반이 되는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이 군민의 삶과 지역 상권을 든든히 지켜내는 경제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21 건강기능식품 생산 품질관리인증 획득
2024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인증 획득
2024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인증 획득

* 유기농 알로에 베라겔 300mg 함유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